

고은 불교대하소설

누 구의 목소리일까? 누구의 목소리를 그대로 흉내내어 들려주는 소리일까?
한 마리 어린 영무새는 무리익은 사람의 목소리를 거의 흉내내듯 흉내내어 말하고 있었다.
그 영무새는 사바세계의 새임에도 잠시 세상을 바꾼듯이 이런 천상에서도 살 수 있는 것이 이상하였다.
이 천상도 육계(界)에 속해있다. 비록 천상이지만 아직 육계 중생의 욕락(欲樂)을 누리는 곳이었다. 그렇다면 누구구의 목소리를 그대로 흉내내어 들려주는 그 소리도 정녕 육계를 벗어난 것은 아닐 터이다.
문득 떠오르기는 그 목소리는 뜻밖에



105

도 저 중국 오지의 동학 막고굴에 머물고 있을 합두의 목소리이기도 하고 마치 그 합두의 그림자인듯이 함께 다니는 불이의 목소리를 알아듣는 것 같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그들 합두와 불이는 지금쯤 어느 세상에 태어나 어떤 품으로 살고 있는 것일까?
“도무지 세계 또는 세간이란 무엇인가... 있는 것이 무너지는 것을 세간이라 하겠지... 있는 것이 다른 것으로 대체되는 것을 세간이라 하겠지...”
이런 소리를 작은 영무새 한 마리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것을 자칫 잘못 듣고 흉내내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 영무새 한 마리도 그 무엇인가, 그 누구구가 영무새로 되어서 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인지 모른다.
합두와 불이가 한 마리 영무새로 몸을 바꾸어 그렇게 길고 긴 소리를 늘어놓는 것이라면 과연 이제부터 수미산의 아스라한 육계 색계 무색계의 우주 여기저기를 찾



아가는 일이 시작된 것을 뜻한다 할 수 있다.
그 소리는 이따금 끊어질듯이 머뭇거리다가도 다시 이어지는 것이었다.

삼계는 세간 전체를 말함이라... 세간의 세(世)란 격별(隔別) 즉 시간이며 공간(空間)이란 간차(間差) 즉 공간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그 세간 만상이 제멋대로 있는 것 같으나 그 차별이 정연하여 결코 어지러운 노릇이 아니었다.
또한 세 즉 시간은 돌아가는 것이며 흘러가는 것이다. 또 무너지는 것이기도 하다...

이렇듯이 세계를 시간과 공간으로 이루어진 것을 밝히는 영무새 소리는 우주 삼천대천세계의 기본인 하나의 소세계(小世界)를 그곳에 사는 중생들의 여러 단계를 갈무리한 세 단계로 나누어 육계 색계 무색계를 뜻하는 것으로 그것이 바로 삼계

이 색계는 육계의 더럽고 나쁜 색을 여의었다 하더라도 오히려 미묘한 청정세계로서의 색은 그 아래의 육계와 그 위의 무색계를 분명히 나누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바로 이 색계 위의 무색계가 색 아닌 법체(法體)의 세계인데 아무런 형질(形質)이 없는 허공 자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생이 아직 깨달음을 얻지 않은 미혹의 세계이므로 그런 허공조차도 중생의 세계인 것이다.

이런 천상의 증생계 각처에 이제부터 태어나거나 떠나거나 하는 일이 활발해질 수록 그런 곳들은 사바세계 남쪽 삼부주의 한 군데인 조선 서해 연안의 섬 무독도는 한갓 티끌로 돌아갈지 모른다.

에 태어나 어떤 증생노릇으로 살고 있는 것인가.
궁극적으로는 증생계의 나고 죽기의 영속적인 되풀이로서의 윤회조차도 아주 커다란 세계 속의 수행이 아니던가.
어찌 석가모니 전생다생의 본생담(本生譚)이 한 보살이 수많은 보살행을 함으

로써 마침내 사바세계의 주세불(主世佛)이 될 수 있던 말인가.
끝내는 석가모니 한 부처만이 아니라 수많은 증생계, 육계 색계 무색계의 한 세계뿐 아니라 그밖의 맞닿은 세계로서의 우주에 가득한 수많은 증생 하나하나가 그들의 너무나 오랜 윤회를 벗어나 문득 해탈의 세계로 되는 것이 한치도 틀림없는 사실이라면 무독도의 공부나 무독도

신이 사는 천상인 것이다.
수미산 제4층의 네 면에 있는 동쪽의 지극한 남쪽의 증정천 서쪽의 광복천 북쪽의 다문천의 네 천신으로서의 왕과 그에 딸린 여러 신들의 곳이 있다.
이들 4천은 수미 4주(四洲)를 수호한다. 그래서 수미산 중턱 4층을 그들의 나라로 삼은 것이다.
그들은 그 위 도리천인 33천의 주재신인 재석천의 명을 받아 4천을 돌아다니며 인간계의 중생을 살피고 그 하나하나를 자세히 보고하는 일을 맡고 있다.
매일 6대일(六曜日)에 7요(七曜)와 28수(二十八宿)에 따라 네곳의 사바세계에 내려가 인간과 증생들의 상악을 은밀히 살피고 있는데 그 지휘는 구름 한 자락에 가리워진 용의 승천과 비슷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전혀 지휘가 없기도 한다.
그런데 이 사바세계에는 증생들이 태어나지 않는 경우이다. 왜냐하면 증생들을 살

천상의 구름

합두와 불이는 도리천에서 천신의 삶을 살고 있었다 그 허공 속에서도 애욕은 여전히 인간의 그것으로...

(三界)이다.
이 세계와 삼계의 계(界)란 간(間)과 같은 뜻으로 공간을 말하거나 가진다는 뜻이기도 하다.
다시 말하면 이 계는 그 안을 채우는 증생들이 각각 그 스스로의 모양(相)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육계란 어떤 곳인가. 육계란 욕락을 추구하는 증생들이 사는 육계 속의 세계이다.
곧 애욕 재욕(財欲) 식욕 색욕 명욕 수욕(色欲)등으로 가득한 세계이다. 이 육계는 마땅히 육계답게 음양의 중생이 서로 어울려 욕락에 몰두하는 것이다.
색계란 물질의 세계이며 여기에는 여성이 없고 붙들어지는 욕락이 없어서 전혀 화생(化生)하는 곳이지만 아직 물질이 있으므로 색계인 것이다.

아직 그곳에는 인담 우녀 그리고 우식 만우와 대해 효영 명오 상물들이 이따금씩 그 섬이 벅찰만한 일이 일어나는 것 말고는 그곳의 오랜 파도소리 만물이나 외구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어린 행자 우식 만우가 밤하늘 속의 별들을 바라보는 추운 밤이건만 정작 그 별들의 세계인 색계 무색계의 물질로서의 중생, 허공으로서의 증생세계는 그 우주 속의 흑한도 흑열도 느낄 수 없는 것이다.
그런 무감각의 우주에 대한 지상에서의 꿈은 하였었다.
바로 그 무독도 수행자들이었던 합두와 불이는 그렇다치고 지옥으로 갔던 남각, 한 마리 고기 속의 발레가 된 무전이나 행방불명의 파편, 아니 조선반도 여기저기를 그 당시의 많은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떠돌던 수월이나 수월은 또 어느 세상

언저리의 고기나 벌레 잔 짐승 따위마저도 다 수행자 아닌 것이 없다.
아무튼 수미산의 우주는 한번 그곳을 순례해 볼만한 곳이므로 이제 합두와 불이가 막고굴의 그 알골사원에서 남겨지고 온 공부를 이 수미산의 여기저기에 그 자취를 남기며 진행시키는 중이었다.
한 마리의 영무새는 우선 육계의 여러 곳에 나타나 합두의 목소리가 아니면 불이의 목소리로 흉내내어 세계에 대한 안내를 맡고 있다.
그런데 그 영무새는 어디서 온 누구의 후신인가?
그 사실이야 장차 알게 될 것이지만 육계천상의 여러 곳을 살펴볼 일이 다급하였다. 먼저 4왕천(四王天)이었다.
고대인도에서는 천, 천상은 그저 하늘이 아니라 신(神)에 해당한다. 말하자면 그

피는 세상이어서 그곳만의 비밀스러움을 합부로 선악에 걸려있는 중생이 알아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그 위에 육계 제2천인 도리천 즉 33천이 있다.
인간계에서 커다란 범종을 저네마다 33번 치는 까닭은 그런 33천의 중생을 위한 축원의 뜻이 간절하게 들어있다.
이 천상계는 지상의 한 나라 신라 선덕여왕이 그대 자신이 죽으면서 태어나기를 서원한 세상이기도 하다. 그녀는 감히 도술천의 내원공이나 외원공을 넘보지도 않았다. 다만 4왕천 위의 그곳에 태어나기만 해도 감지덕지하다는 하심(下心)의 여인으로 그곳 도리천을 바랐던 것이다.
아마도 그녀는 그곳에 태어나 도리천의 천녀로 살다가 다른 세상으로 거듭나고 거듭 났으리라.

“ 윤회조차도 수행이라면 우주가득한 중생 벌레까지도 수행자들이다 ”

이 33천은 수미산 꼭대기에 재석천의 천신을 중심으로 해서 사방에 각각 8천개의 하늘나라로 되어 있다.
인간이 살고 있는 남성부주에서 8만유순이 되는 높은 천상계인데 그 한복판의 선경성이 있다. 그 성은 4면이 각각 8만유순이 되는 커다란 하늘 속의 도성(都城)이다.
바로 이곳에 재석천이 머물러 있으면서 증생계에 대한 깊은 관심을 나타낸다.
네 군데에 각각 8성이 있어 그곳에 많은 천신들이 살고 있는데 이 네 군데 동서남북의 8성을 합하면 32성이니 거기에 재석천의 성을 더해서 33천이 된다.
3제일마다 성 밖의 선법당이라는 하늘 속에 모여 진리에 대한 토론이 있을 때는 실로 장관이어서 그 토론이 하늘 속의 우렁찬 우레소리나 천둥소리들로 퍼져나가기도 한다.
벌써 이 33천의 도리천 남쪽 8성 가운데 하나인 성에 합두와 불이가 태어나 그곳 천신의 삶을 살피고 인간의 윤회와 다를 바 없는 애욕에 빠지기도 진리의 화합과 정진을 병행하고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어느 곳에 남겨둔 영무새에게 전달한 세계 우주에의 소개도 그들 자신의 것이면서 그들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였다.
이 도리천 33천의 세계도 그 세계의 주재신 재석천도 인간의 애욕 그대로인 것이고 그 아래의 4왕천도 인간의 애욕 그대로이다. 과연 육계의 천상이라 아무리 허공 속이건만 그 허공 속에서도 애욕은 여전히 인간의 그것으로 나타난다.
이제 4왕천과 도리천의 세계를 더듬어 보았거나 여기까지 와서 태어날 무독도 아래의 사람들은 언제까지 더 기다려야 하는가.
아니 그들은 먼 과거의 속세(俗世)를 통해서 진작 이곳에 태어나 천신으로 산 적이 많았던 것이다. 그러나 그 사실이 대단한 기억은 그들의 이따위씩 밖으로 튀어나와 그런 사실들을 입사리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합두의 아름다운 용모는 그대로 이곳 33천의 한 성 안에서 아름다운 천녀로 이어졌고 불이도 지상에서의 시인 그대로 이곳에서 천상의 악기를 반주로 해서 시가를 읊고 있었다.

그림·조항숙

현대불교

생활광고

본원은 독자 여러분의 뜻에 따라 꾸어지는 생활광고입니다. 최소의 비용, 최대의 효과, 현대불교 생활광고에서 찾으십시오.

- 생물공공
- 개인입학
- 불교관련공공
- 정보교본, 도서
- 지체공공
- 인쇄
- 각종행사
- 신상공공

문의 (02)737-8881 (공고국) 팩스 (02)737-0697

보리수

취급 | 각종수입항, 염주 | 일체 품목 | 불교악세사리

남대문 자유 수미산가 구84호 전화: 778-5345, 팩스: 777-1917

주 大明堂 (삼계) 急賣

위치: 중북 단양 정경면 錦山 최고요계(임야52평) *매로10에서 15분 관공저장, 버스정기(상급) 정국 *가격: 평당 40만원(타는 백동, 같은 공동묘지거기) *기타: 중남향, 남향강, 도당삼부이 아래 펼쳐져있는 경치 최고

연락처: (0343)71-7242(산주) *부동산 절대 사절

20년 전통의 모범임소

여의도 소망 결혼 상담소 (방역 11호)

한마음으로 행복한 삶을 영위해나갈 평생 반려자를 불자님께 맺어드리겠습니다.

당당 김준미 합장

- 초혼: 의사, 박사, 약사, 판·검사, 행정고시 합격자
- 재혼전문
- 엘리트 결혼·중매
- 책임성혼

문의 | 주간 (02)783-1777 전 화 | 야간 (0343)47-1046

탈종공고

대한불교 본원종 총무원장 귀하

사찰명: 수도사 소 지: 충남 공주시 반포면 온천리

상기 사찰은 귀 종단의 종지와 종풍이 맞지 아니하므로 탈종을 공고합니다. 1996년 12월 5일 수도사 주지 윤정수(인한)

탈종공고

대한불교 총회종 총무원장 귀하

사찰명: 관음사 소 지: 충남 공주시 반포면 온천리

상기 사찰은 귀 종단의 종지와 종풍이 맞지 아니하므로 탈종을 공고합니다. 1996년 12월 5일 관음사 주지 박대호(월남)

神祕한 東洋哲學

신생아 작명 역학 개인지도 선남·선녀궁합, 학생적성 ☎ 738-2045, 2046 현대불교신문사앞 韓國民俗哲學研究所

최우교정·지압술 및 개인지도

좌절신경통

TEL: 543-7306, 711-4370 전문시술원 張三洙

늙지않는 피부관리(남·여) 기미·여드름·검버섯·늘어진얼굴

블루앙피부관리회관

입구정점 3443-0996 강남전철역점 563-5791

암·간경화 정신질환·신병 명명없는병·불지병

6개월 이상 생존 할 수 있으며 자력으로 활동 할 수 있는 기력을 가진 환자로서

4개월간 정기 심요법을 받은 환자 10명중 9명이상 의학적인 완치를 입증 임상 사례공개

신앙기도·천도제·구명식식 아님

연락처: (0552)82-8118 (0552)82-8128 H-P011-559-8128 경남 함안군 군북면 허림리 보은암

특별) 스님을 모십니다

1. 역학에 조예있고 상담만 전담할 스님
2. 침술 및 병고치료에 덕망있는 스님

속식하고 같이 생활 할 수 있는 스님

자세한 사항은 직접 오셔서 협의 바랍니다.

부산: 최고의 중심지역 포교원 ☎ 051)465-5100 전화문의: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

탁자, 달집, 법상, 문짝, 불교조각

주요불사목적

- 합진(제인사) 대제왕법상, 법상, 경상
- 제왕사(제왕사) 대제왕수미산 달집 문짝
- 사물(제왕사) 법상, 수미산 달집 문짝
- 용상(삼보사) 대제왕 문짝
- 화진(법상사) 대제왕 문짝
- 중주(법상사) 대제왕 수미산 달집 문짝
- 마진(제왕사) 대제왕 문짝 달집
- 모진(제왕사) 대제왕 문짝 달집
- 안진(제왕사) 대제왕수미산 달집 문짝
- 이취(제왕사) 회관 문사, 그외 대수 사물

대진(전승)공예사

밴드폰 011-282-4609
팩 02-248-4609
공 0346-571-9538
호 012-210-1401

불교공예

본 불교공예에서는 20년 전통의 전통과 기술로써 각 사찰의 법당을 장엄하여 천 년을 기리 남을 정성을 다 하여 봉사하겠습니다.

대표 임태복 합장

진도 방제사: 서왕전, 불단, 속초 구룡암: 천왕전, 단청, 산신각, 문막 제주도 한자사: 불단, 단청, 법상 등

설악산 오세암: 천왕전, 단청 등

구모동 현종사: 불단, 문막

봉곡여래전: 불단, 문막, 경락의

당주리 보문정사: 불단

만안 약수암: 불단, 단청, 천왕의 대수 사물 등

연락처: (0346)553-6480